

줄무늬 문양 복식의 미적 가치에 관한 역사적 고찰
- 중세부터 19C 말을 중심으로 -

박 선 경[†]

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A Study on the Aesthetic Value of the Clothes of the Stripe Pattern
in a Historical Point of View
- From Medieval Age to the Late Nineteenth Century -

Sun-Kyung Park[†]

Dept. of Fashion Design, Kookmin University

(2005. 2. 1. 접수: 2005. 5. 14. 채택)

Abstract

This study puts emphasis on showing the change of Stripe Pattern, which has been popular for a long period of time in many societies, with change in time, assessing its value as an art. During medieval period, Stripe Pattern had a strong negative meaning as a sign of disgrace or inferiority, or had been used as discrimination against a mental or a sinner, who had been rejected or banished from the society. Through French Revolution, Stripe Pattern has become a symbol of liberty and equality, furthermore, the notion of society as well as countries. This event had positively affected on reevaluating its image, from inferior, negative to significant, artistic. Eventually the variety of aesthetic values of Stripe Pattern led its way to the variation of its functional value expanding its use other than fashion industry. It is anticipated that our fashion industry will flourish in creating new, creative design by understanding design and appreciating their aesthetic values with their applications to human sensibility.

Key words: stripe pattern(줄무늬 문양), aesthetic value(미적 가치), negative meaning(부정적인 의미), positive meaning(긍정적인 의미).

I. 서 론

문양은 인간의 생활 중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상징적인 사고의 산물로써 인간의 생활 감정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대에 나타나는

양상의 특징은 한 시대의 양식을 창조한다. 그리고 그 양상은 다음 시대로 계승해 가면서 형식으로 남거나 점차 변화한다. 변화의 요인으로는 지리적인 조건이나 민족의 이동, 혹은 외래 문화에 영향을 받는 것 같은 커다란 외부의 힘이나 한 국가의 정치, 문화 등이다.¹⁾

본 연구는 2003년도 국민대학교 환경디자인연구소 학술 연구 조성비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E-mail: PAK27@kookmin.ac.kr

1) 김지희 외 2인, *날염 디자인* (도서출판 조형사, 1994), p. 12.

이렇듯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시대의 변천에 따라 변화하는 문양 중 현대 패션에서 가장 많이 표현되고 있는 문양이 기하학적 문양이다. 이 기하학적 문양 중에서도 가장 강한 표현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이 줄무늬 문양으로 이는 복식 표현에서 강한 대비감으로 인한 차별감을 지니며 역동감과 유연한 운동감으로 그 특징을 나타내 보여주고²⁾ 있어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창작의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중세시대의 줄무늬 문양은 하인, 범죄자 등 하층계급을 차별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어져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위반, 무질서를 응징하여 제어하는 상징적인 표시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 예를 들면 자동차의 안전지대 등 차선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줄무늬는 시각적인 측면에서 위험을 알림으로써 질서의 도구가 되어 조직 체계와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곧 엄격하고 제한된 규율 자체를 암시함으로써 무질서와 위반을 제어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이는 중세시대와 같은 상징적 맥락에서 시작되었으므로 이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줄무늬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회적인 측면과 시각적인 측면에서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줄무늬 문양의 상징적인 표현에서 그 사회적인 관점과 시각적인 관점에서 급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19세기 말을 기점으로 중세부터 19세기 말 이전을 연구의 범위로 삼았고 여기에 연구의 방법으로는 시대의 변천을 통해 적용되어지는 미적인 가치를 상징적인 의미와 표현 구조적인 의미로 나누어 고찰함으로써 줄무늬 문양의 정체성을 이해하고자 했다. 연구의 목적은 줄무늬 문양을 심도 있게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조형가치를 얻고자 함에 있고 이를 통해 21세기 패션 디자인에 새로운 영감을 창출하는 활용도 높은 적절한 디자인의 요소로써 줄무늬 문양이 제시되어지고자 한다.

II. 문양의 일반적 고찰

1. 문양의 기원 및 개요

자연적 현상에 의하여 이루어진 무늬, 기하학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무늬가 연속되어 구성되었을 때 그 단위를 문양이라 한다.³⁾

인간의 소망과 위로와 동시에 상위를 기원하고자 하는 주술적인 의미에서 그 염원을 담은 상징물으로써 문양의 근원을 발견 할 수 있다. 크레타(Crete)섬에서 발굴된 고대 토기의 줄무늬 문양은 생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문양을 조형물에 조각해 넣음으로써 생명력을 지남을 기원하고자 한 것에서 알 수 있겠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권에서의 불교적인 사상은 사원의 건축 문양, 또는 의복, 장식품 등에 그 상징적인 표현성을 지니고 발전되어 왔다.⁴⁾

또 언어가 발달되기 이전에 의사 전달의 수단으로 쓰였던 표시나 기호로부터 문양은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어 이 기호나 표시는 마음에 있는 생각을 형상화 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문양은 인간의 근본적인 생활 그 자체와 더불어 시작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인간이 원시적인 나체 상태에서 몸에 채색하거나 상처를 내어 무엇인가 표현하였던 것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그림 1).

인간이 자연 대상을 묘사하는 것은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보강하고자 하는 감정으로부터 구체화 된 것



〈그림 1〉 몸에 새겨진 문양.

(출처: 복식 미학의 이해, 1998).

2) 강신우, 금기숙, “기하학적 패턴을 활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복식 52권 1호 (2000), p. 53.

3) 임영주, 한국문양사 (서울: 미진사, 1998), p. 24.

4) Ibid.

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자연 대상에 대한 감정을 풀어 놓으려는 인간의 미의식과 표현성으로서의 미적 욕구에서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의 고유 문양 중에 용, 봉황, 학, 송죽매 등은 단순한 동물 문양, 식물 문양이 아니라 길상을 미의식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미적 욕구가 그 의지 속에 작용하여 나타날 때 미적 가치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표현되는 것이다.

특유의 문양은 시대와 민족을 대신하는 조형 기호로도 쓰이는데 중세 유럽의 고딕 복식에 사용된 문양은 각 가문을 나타내는 상징적 구실을 했다. 십자군 전쟁에서 비롯된 문양은 원래 기사가 속한 영주의 가문을 표시하였으나 이것이 점차 평상시의 복장에 문양화 되면서 장식과 신분 표시의 구실을 동시에 해내게 되었다. 이처럼 문양은 복식에 있어서 문양 자체의 아름다움의 장식적 구실도 있지만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는 미적 의지의 표현물이다.

2. 문양의 구성 및 종류

문양을 어떻게 배열하느냐, 즉 하나의 주제로 된 단일화된 문양과 복합적인 문양은 한정된 공간에 의도하는 문양을 어떻게 배치하느냐는 구도의 성격에 따라 그 특성이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배치하는 형식에 따라 단독 구성, 복수 구성, 방향성을 지닌 구성, 전면(全面) 구성, 회화풍 구성 등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문양은 그 자체의 독립적인 것보다는 문양이 존재하는 바탕인 의복에 종속하는 관계에 놓인다. 그러므로 바탕의 미적 효과를 위한 제 2의 구실을 하지만 때로는 오히려 문양이 전체의 주된 의미로 부각되어 개성을 나타내기도 한다.⁵⁾

아로이스 리글(Alois Riegl)은 「미술 양식론의 기하학적 양식」에서 “미술의 모든 형상에는 자연의 형태가 근저를 이루고 있다. 자연이 만들어낸 그대로이든 인간이 용도상 또는 유희적으로 가한 변형의 경우이든 자연 형상이 근본을 이룬다.” 라고 했다. 이는 문양이란 자연 형상을 모티브로 해서 응용되거나, 또는 자연 형상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다. 이처럼 문양의 근본적인 소재는 자연적인 것에서 유래된 것이나 편의상 시각적인 구분을 도데로 그 소재를 분류해 보면 사실적인 형태에 충실한 자연 문양,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든 기하학 문양과 점 문양, 비사실적인 추상 문양과 전통 문양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⁶⁾

Ⅲ. 줄무늬 문양의 이론적 배경

1. 줄무늬 문양의 특징

구조적으로 기하학 분야에 속해 있는 줄무늬 문양은 일정한 방향의 줄 모양이 전면에서 배열되는 것으로 줄무늬의 간격, 넓이, 모양 등으로 변화를 주어 만들어진 형태로 횡선, 종선이 일률적으로 또는 불규칙적으로 배열되거나 또는 다른 형태로 전개되어지기도 한다.

줄무늬를 읽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바탕과 무늬, 바탕색과 무늬색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줄무늬 문양중에는 핀 포인트(Pin point), 펜슬(Pencil), 더블(Double), 블록(Block), 초크(Chock), 글라스(Glass), 어린지(Arrange) 등의 명칭을 가진 문양들이 있다.⁷⁾

줄무늬 문양은 어느 민족에게나 널리 사용된 문양으로 유행성이 없으며 단순, 명쾌한 느낌을 지니고 있고, 추상 문양에 비해 정형이며 의도적으로 구성되어진 것이다. 대담함과 차별된 정숙함은 규칙적이고 단정한 느낌을 주어 싫증이 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경쾌함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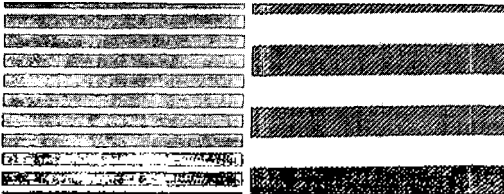
19C 이후 산업 혁명에 따른 직조 기술의 발달과 현대적인 조형 감각의 추구로 여성과 남성용 불문하고 모든 의상에 급진적으로 사용되게 되는 줄무늬 문양은 현대 패션에서도 변함없이 애용되고 있다. 줄무늬 문양이 활용된 디자인에 내재된 조형 의지 속에서는 절제된 단순함과 명확성으로 단순미가 강한 색상 대비로 인한 시각적 집중 효과로 주목성을 가지며 재현이 가능하게 나타나 반복성이 유추된다⁸⁾고 했다. 본 논문에서는 줄무늬 문양 중 위와 같은 줄무늬 특성을

5) 김영자, *복식미학의 이해* (서울: 경춘사, 1998), pp. 179-180.

6) *Ibid.*, p. 190.

7) *Ibid.*, pp. 89-90.

8) 강신우, 금기숙, *Op. cit.*, p. 54.



〈그림 2〉 초크 줄무늬와 블록 줄무늬. (출처: 날업다 자인, 1994).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초크 줄무늬나 블록 줄무늬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그림 2).

2. 줄무늬 문양의 언어적 이해

중세 시대에는 줄무늬는 라틴어 *varietas*로 다양성, 다양한 사교를 의미한다. *virgulus*, *lineatus*, *fasciatus* 등의 단어는 다양한(*varius*)과 동의어로 줄무늬에 대한 비방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중세 문화 속에서 *varius*는 항상 너러운 것, 도전적인 것, 무도덕한 것, 미숙한 것을 의미한다. 다양성을 가진 다양한(*varius*) 인간들은 교활하거나 위선적이고 잔인하고 특히 정신병이나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의미한다. 중세시대의 그림 속에 배반자(카인, 유다), 잔인한 자(사형 집행인), 미친 사람(칭경의 정신병자), 불구자(나환자, 위선자)들은 대부분 줄무늬 옷을 입고 있다.⁹⁾

그러나, 현대적 해석으로 다양성(*varietas*, *variété*)은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젊음, 쾌활함, 관용, 호기심을 내포한 의미이다.

현대의 불어로 동사 *rayer*(줄치다)는 ‘제거하다’와 ‘처치하다’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독일어의 동사 *streifen*(줄치다)과 *strafen*(벌주다)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영어에서 *stripe*는 천에 줄무늬 디자인하는 것을 뜻한다. 동사 *to stripe*은 ‘옷을 벗기다’와 ‘벌주다’의 의미를 갖고 있고 *to strike off*는 리스트에서 ‘제거하다’, ‘말소하다’, ‘추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라틴어에선 동사 *stringere*(줄치다)는 *serere*(잡다), *rayer*(줄치다), *priver*(박탈하다)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 라틴어, 영어, 독일어, 불어 모두 *stri-*라는 어근 주위에서 분절된 단어들은 모두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오랜 기간 서양 문화 속에서 줄무늬의 개념과 방해, 금지, 차별 사이의 연관성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3. 문장학의 기초

12세기경 군사적 사회적 필요에 의해 출현한 유럽의 가문의 문장은 색과 문양으로 이루어진 상징물로 모든 상징 체계에 있어서 효과적인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12세기 중반 이후 문장 체계는 전성기를 맞게 되고 각 가문들은 정체성을 표시하기 위해 소유권 표시로써의 장식적 모티프를 만들어 냈고 이를 구성원, 군사의 의복, 건물, 가구, 책, 동전, 예술품, 생활용품 등에 모두 사용하게 했다. 결국 기법과 형상으로 가문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문장을 만들어내는데 줄무늬는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줄무늬가 기하학적인 구조를 지닌 채 무궁무진한 변화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표현하기 단순하고 쉬운 형태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사회 전체의 문장과 가족 문장을 재편성하고 분류되는 한 가문의 예를 들면 장남이 은색과 하늘색의 가로줄 무늬(*fascé*)의 방패를 가지고 있다. *Fascié*는 *fascé-ployé*(구불구불한 줄무늬), *fascé-ondé*(너풀거리는 줄무늬), *fascé-crénele*(총안무늬), *fascé-deutelle*(작은 돌니모양의 줄무늬), *fascé-vivré*(돌니모양이 강조된 줄무늬)로 나누어질 수 있다.¹⁰⁾ 짝수 홀수로 구분되는 줄무늬 숫자에 *burelé*라는 또 다른 줄무늬의 명칭으로 그 모양을 달리 하기 때문에 이 체계는 끝없이 변화 가능한 구조적이고 물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차남, 삼남 등은 *fascé-ondé*, *fascé-vivré*, *fascé-crénele*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¹¹⁾ 즉 가족의 결속력을 강조할 수 있도록 같은 모티프의 문장을 사용했으나 파생된 분가임을 보여주기 위해 변형된 줄무늬로써 묘사함으로써 가문의 정체성을 상징적인 형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안데스 산맥의 주변의 나라에서는 줄무늬로 씨족, 풍습, 가족을 구별시켜 표시하고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지역에서도 줄무늬와 비슷한 기호로 다양한 그룹 속에서 개인을 표시하고 사회 전체 속에서 그룹을 상징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9) Michel Pastoureau, *Rayures* (Paris: Editions seuil, 1995), p. 5.

10) *Ibid.*, p. 38.

11) *Ibid.*, p. 39.

18C로 가면 비슷한 구조를 스코틀랜드에서도 볼 수 있는데 격자 무늬 모식물 문양으로 사회구조상의 등급 및 차이를 나누고 있었다.¹²⁾ 다양한 재료(나무, 돌, 천, 종이, 가죽)에 각기 다른 사회, 문화 등을 상징적인 표현체로서 독자적인 권력을 과시하는 것이다.

이런 상징적인 표현과 함께 문장학에서 우선시 되는 것이 기문의 이미지의 형상보다 이미지의 구조체 그 자체가 된다. 즉 대부분의 줄무늬는 문장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줄무늬는 형상이기 이전에 구조로서 표현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중세의 그림이나 문학 속에서 상상으로 만들어진 문장 가운데 반역한 기사, 왕위를 찬탈한 왕자, 이교도의 왕, 서자나 서출 출신, 잔인한 사람, 불명예스럽고, 불결한 것 등의 뜻을 지닌 가문의 문장에는 반드시 줄무늬가 적용된다. 그러나 현실의 수많은 가문들은 줄무늬를 매력적인 문장의 구조체로서 소유하고 있다¹³⁾는 점이다. 중세인들은 감수성과 상상력 속에서 의미하고 내포하는 형상이나 색, 구조체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¹⁴⁾ 현재의 많은 나라들의 국기(그림 3)가 봉건시대의 깃발이나 왕족 가문의 문장에서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때 한 나라의 국기는 어떤 국가의 것이든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결국 줄무늬 문양의 상징성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의 서로 상반된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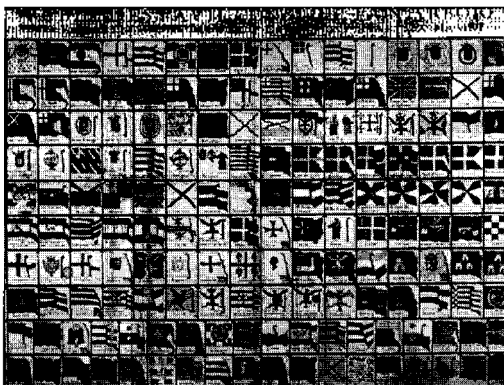
IV. 줄무늬 문양 복식의 미적 가치

1. 상징적 의미

13C 중반 프랑스의 카르멘 수도회의 수도승들은 줄무늬 망토를 걸치고 생활한다. 그들에게 이 망토의 의미는 성서의 성인인 엘리야가 입은 갈색 줄무늬의 의미인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를 착용함으로 신앙 세계에 들어가는 통과 종교 의식이었다. 그러나 프랑스인들에게 폭언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 조롱을 받았다. 왜냐하면 단어 *les barres*는 옛날 프랑스어로 줄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서출, 서자란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다. 1260년 교황 알렉산더 4세는 줄무늬 문양의 망토를 입지 못하게 했지만 서로간의 토의, 협상, 서약, 후퇴의 반복으로 해결을 볼 수 없었고 1287년에 이르러서야 줄무늬 옷을 입는 것은 종교적 규범으로 철저히 금지하게 된다. 그러나 앞서 프랑스 구어의 의미에서 뿐 아니라 줄무늬 문양의 망토는 어슬람 지역의 아랍인들이 입는 복식과 유사하며 동양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학자들은 규정짓고 있다. 이는 문화적 종교적인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 및 거부감에 이르는 상징성의 문제인 것이다.¹⁵⁾

서양 유럽 가문의 문장속의 줄무늬는 사회가 점점 가문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표시하기 위해 형태, 색, 재질, 모티브 등으로 액세서리나 장식 등에 표시되었다. 가문 내에서 대가족의 구성원간에 부계와 모계에 따라 독립 연합하여 구분되게 사용된 문장 형성에 상징 체계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감당한 줄무늬 문양은 규범과 형상으로써 가문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데 역할을 한다. 이는 문장의 출현과 문장학의 기초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줄무늬가 점차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하여 상징적인 기능을 갖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중세 말기에 이르기까지 중세의 종교화에선 목수 요한은 소교구나 마을의 노리개로 대머리에 음주벽



〈그림 3〉 유럽 국가들의 국기 -중세의 가문 문장에서 기원. (출처 : RAYURES, 1995).

12) 정혜정, "19·20 세기 패션에 나타난 Scotland tartan 연구," 복식 41권 (1998), pp. 169-183.

13) Michiel Rastoureaux, *Op. cit.*, p. 39.

14) *Ibid.*, p. 41.

15) *Ibid.*, pp. 15-17.

으로 떨고 있는 노인으로 묘사되고 있다. 중요한 인물이 아닌 항상 등을 보이는 모습이지만 성모, 아기 예수나 성 엘리자베스보다 뒤로 물러선 모습¹⁶⁾으로 등장한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인들의 대열에 연분의 힘을 과시하며 목수와 성인으로서 품위 있게 탈바꿈한다. 그러나 15~16C 초반 몇 그림 속에서 독특한 이미지의 그를 볼 수 있는데 줄무늬 바지를 입고 항상 등을 보이거나 성모 성자 뒤에 물러서 엉거주춤한 모습인 그의 결정적인 역할은 수치스러움보다 애보호함으로 표시된다. 그는 변화가 많은 인물, 즉 성모보다는 덜 성스럽고 산만하고 모호하여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인물로 표현되고 있다.¹⁷⁾ 즉 중세의 줄무늬는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불명에, 체벌의 의미와 때로는 모호함을 지니는 양면성으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후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 상징적인 의미가 긍정적, 적극적으로 발전하여 그 미적인 가치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2. 표면 구조적 의미

국가나 민족 단체 지역 등을 목적으로 가지고 복식으로 차별화 시키고 구분시키는데 있어 줄무늬 문양은 효과적인 힘을 발휘한다. 확실한 줄무늬 문양은 유대인이나 회교도들이 사용하던 별 모양이나 작은 원의 심벌 마크보다 오히려 강하게 복직하는 바 그 뜻을 달성시키고 있다. 줄무늬 문양의 표면 구조는 그 어떤 형태나 색상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눈에 띄기 때문이다. 줄무늬 문양은 드러냄과 동시에 감추기도 하고 부분적이면서도 전체가 될 수 있으며, 그 표면 구성에서 시작이 어디이며 끝이 어디인지, 어느 부분이 앞쪽이며 어느 부분이 뒤쪽인지, 또 어떤 것이 아래이고 위인지 하는 시각적인 문제를 늘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착시 효과는 눈을 혼란스럽게 하지만 단색보다 강한 액센트를 주어 눈에 잘 띄며 다른 것과 구별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6세기 베네치아의 화가 파올로 베로네(Paolo Veronese)는 그의 그림의 중앙에 줄무늬 문양의 옷을 입은 사람을 배치함으로써 관람자의 시선을 그림에 붙잡아 두고 있다(그림 4).



〈그림 4〉 줄무늬 옷을 입은 하인을 중앙에 배치 -16C. (출처: HISTORY OF ART, 1982).

줄무늬는 사이즈를 크게 보이게 하고 활동적인 분위기를 주며 표면을 환상적으로 보이게 하여 단독으로 사용될 때 그것은 환영을 일으키고, 응시하는 것을 방해하고 눈을 깜빡이는 것 같은 느낌과 흔들거리며 달아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줄무늬 문양은 구조와 형태의 차이를 느낄 수 없다. 구조가 바로 형태가 되고 완성되지 못한 구조는 확실히 정착하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순수한 줄무늬는 시선을 정지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의 연속적인 구조는 반복되는 시각적인 효과로 정신과 감각을 혼란스럽게도 만든다. 그러나 이 리듬감은 다이내믹한 움직임으로 다른 상태로 이동하는 느낌을 주며 보는 사람의 시선을 줄쳐진 표면위에 정지시켜 두지 않는다. 폴란드 화가 브뤼겔(Burugel)의 그림에서 중앙에 중요하지 않은 농부들, 상인들에게 줄무늬의 옷과 모자를 씌워 놓았다. 마리아나 성인 성녀들이 아닌 줄무늬 옷의 농부들에게 우선 관람자의 시선을 조정시킨 후 연속성을 가지고 뒷면의 무분별한 관중속의 십자가에 짓눌린 그리스도를 관람자의 시선 안으로 이끌려 들어오게 하고 있다(그림 5).

이와 같이 줄무늬 문양은 차별성, 강한 주목성, 반복으로 인한 리듬감에 의한 연속성, 경쾌함을 그 표면 구조상의 특징으로 이루면서 표현되고 있다. 중세 이후 15~16C에 이르기까지는 줄무늬 문양은 특별히 차별성을 지닌 그 특징으로써 적극 활용되었다. 프랑스

16) *Ibid.*, p. 44.

17) *Ibid.*, pp. 15-17.



〈그림 5〉 울무늬 문양의 효과적인 역할 -16C. (출처: HISTORY OF ART, 1982).

혁명기를 거쳐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외의 특징들이 활용되어 그 역할을 충실히 하며 나타난다.

V. 시대 변천에 따른 울무늬 문양 복식의 미적 가치

1. 12C, 13C

11C 후반까지 울무늬 문양 옷은 주로 하인, 노예, 식당과 마구간의 하인, 푸주간의 하인, 방재공 등 하류 계급 사람들이 입었던 것을 12C에 이르러 영주의 자율권 하에서 울무늬 문양의 옷을 입는 직업이 조금씩 확산된다. 술 따르는 사람, 집사, 늑대 사냥꾼, 매 사냥 관리인, 사향 집행인 등으로 울무늬 문양 옷을 입는 직업의 분포도가 조금씩 확대되어갔다¹⁸⁾(그림 6).

영주들은 가문 휘하의 사병들에게 가문의 상징이 되는 울무늬와 기호를 사용한 옷을 입히게 되는데 이로써 자신의 가문을 다른 가문과 구별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12~13세기 궁정식 소설이나 노래, 저속한 언어의 통속적인 책 등에서만 반역한 기사들, 간통한 여자, 모반을 꾀한 아들, 맹세를 어긴 형제들, 잔인한 난장이, 어리석은 하인들은 모두다 울무늬 옷을 입고 등장한다. 이로써 이들은 자신들의 직업과 계급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13C 중세의 세밀화에선 주로 사회 질서를 위한한 사람들로 재판을 받는 사람들(반역자, 죄인들), 병약한 사람들(나환자, 위선자, 정신질환자, 광인) 또는



〈그림 6〉 세례요한의 목을 자르게 한 간교한 여인의 울무늬 문양 복식 -12C. (출처: RAYURES, 1995).

천인들(하인, 시종, 수치스런 직업(광대, 창녀, 걸인), 마법사로 오해 받는 대장장이, 잔인함의 상징인 푸줏간, 울무늬 옷을 입는 사람¹⁹⁾)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세 말기 사회 단속 차원에서 창녀, 악사, 광대, 사형 집행인에게 울무늬 옷을 입힌 것도 일반 서민과 시각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표시가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했다(그림 7). 이런 사회적인 규범은 1220~1235년에 완성된 독일 색슨 족의 법전인 Sachsenspiegel에



〈그림 7〉 강하게 구별되는 색상의 악사들의 울무늬 문양 복식 - 13c. (출처: RAYURES, 1995).

18) Ibid., p. 50.

19) Ibid., p. 22.

서 죄인이나 노예들에게 줄무늬 옷을 입힌 기록²⁰⁾에서도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입지 않은 사람과의 확실한 차별감을 지니는 목적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상징적인 차별, 구별의 의미를 위해서 이 시기의 대부분의 줄무늬 문양은 명확한 대비감을 느낄 수 있도록 1차색의 강한 색감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2. 14C

1310년 루앙에서 한 구부 수선인은 줄무늬 옷을 입고 결혼식을 해 사형선고를 받은 기록²¹⁾이 있다. 그러나 14C 중반에 이르러 베니스, 밀라노 등지에서 페스트로 시련을 겪은 후 젊은 귀족들 사이에 희생의 기쁨을 줄무늬 문양의 옷으로 일상화 시키면서, 잠시 유행하기도 했다. 주로 바지나 소매에 사용되었고 새로운 배열 방법이 선보이기도 한다. 부정적인 시각에서 주로 사용되던 가로 줄무늬가 아닌 세로 줄무늬나 사선의 다른 표현 방법이 주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적 규범때문에 이 새로운 유행은 강력하지 못하였다.

14C 이전까지 볼 수 있는 세밀화의 줄무늬 문양은 가로 줄무늬로 번번이 노예, 죄인 등 사회의 천대 받는 부류에 대한 상징성이 주어져 있다면 14C에 이르러 세로 줄무늬는 귀족 등 상류 사회의 실내 생활 중 내부 장식에 사용하여 줄김으로써 그 가치를 이원화시키고자 한 것 같다(그림 8). 그러나, 그 이후 종교개혁, 전쟁으로 인한 경제난, 정치와 종교의 충돌, 구교



〈그림 8〉 상류층 실내 벽의 세로줄 무늬-14C. (출처: RAYURES, 1995).

의 반종교개혁 등 사회적인 흐름은 복식을 더 신중하고 엄격하게 되돌리려는 경향으로 바뀌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적인 규범으로서의 줄무늬 문양의 위상은 더욱 더 부정적인 측면에서 적용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중세 이후를 기점으로 사회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불명예스러운 차별의 복적으로 주어졌던 줄무늬의 표시는 그 구별됨의 강도에 의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상징성의 의미가 변화될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3. 15C, 16C

가문을 상징하는 줄무늬 문양을 이 시대에 이르러서는 가문의 구성원 대부분에게 상용하게 되기에 이른다(그림 9).

전시대의 것이 혼란과 혼돈의 의미를 지닌 격조가 낮은 가로 줄무늬 문양이 대부분이었다면 이 시기에 이르러서 기하학적이고 리듬감과 색채 감각까지 지닌 변화의 시각으로 우아함을 느끼기 조차 할 수 있도록 변화된다(그림 10).

15C 말엽의 상의 〈그림 11〉에서도 격조 있는 사선 줄무늬의 우아함을 통해 줄무늬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그림에서 줄무늬 문양 드레스, 상의, 겹옷 등을 입은 하인이거나 하녀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베니스의 상류 귀족층들은 아프리카의 어린 소년들을 궁중 노예로 두



〈그림 9〉 가문의 구성원들의 줄무늬 문양 복식- 15C. 바티칸 볼센스 박물관. (출처: RAYURES, 1995).

20) J. Martin et A. Nitschke, *Zen Sozialgeschichte der Kindheit* (Munich et Fribourg, 1986), p. 492.

21) Michel Rastoureaux, *Op. cit.*, p. 19.



〈그림 10〉 우아함, 리듬감, 색채감각이 나타나고 있는 변화- 16C 라파엘작. (출처: RAYURES,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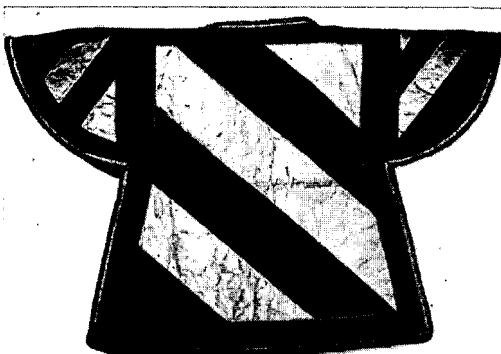


〈그림 12〉 흑인왕의 줄무늬 문양의 멘틀-16C초. (출처: *The Life of CHRIST in Art*, 1996).

었다. 아프리카의 영향이 패션에 빠른 영향을 미쳤고 알프스 산맥 넘어 까지 전파되기 시작한다. 모든 궁중에서 아프리카 노예를 두어 그들에게 줄무늬 옷을 입혔다.

화가 베로네는 줄무늬 옷을 입은 하인들을 그의 그림에 등장시키고 있다(그림 4). 줄무늬 문양에 부여된 의미는 야성적인 것으로 유럽의 동시대의 사회 문화 질서에 의한 반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교도적인 것 또는 이국적인 것, 즉 자연속의 삶에 대한 관심, 이교도의 종교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의미로서는 문명 생활과 격리된 죄인, 하인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표시로도 사용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다. 15C말 뒤러(Albrecht Durer)의 예수에게 경배하는 동방박사인 흑인왕은 사선의 줄무늬 옷을 입고 있다(그림 12). 이후 이것은 초상화의 하나의 특징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전자에 속하는 의미가 더 그 강도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또다른 의미로써는 19C말에 영국의 빅토리아 왕조시대에 나타나는 제복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는데, 이 제복은 이후 노랑, 검정, 배합의 줄무늬 문양의 베스트로 유럽과 미국으로 전파되어 호텔 종업원의 신분을 상징하는 옷으로 전개된다. 그리고 이 베스트의 명칭을 영국에서는 호랑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졌다 한다.²²⁾ 이는 아프리카적인 요소와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혼합적인 요소를 지닌 이 베스트는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단지 광고 포스터 등에서만 자주 등장하곤 했지 상류층들에게는 입혀지지 않았다.



〈그림 11〉 사선의 줄무늬 문양의 겹옷-15C말. (출처: *20000 Years of Fashion*, 1987).

4. 17C

중반 20~30년대 동안 스페인 패션 특히 일상적인 남자 옷의 소매와 바지 등에서 줄무늬 문양이 많이 나타난다(그림 13). 색상은 주로 2~3차색으로 보라색과 갈색, 검정색과 보라색, 어두운 녹색과 금색 등으

22) *Ibid.*, p. 51.



〈그림 13〉 세련된 색상 배합의 줄무늬 문양-17C. (출처: RAYURES, 1995).

로 나타나고 있어 세련되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 세로 줄무늬의 유행은 30년 전쟁으로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²³⁾ 전쟁기간 동안 돈으로 고용된 군인인 용병들의 줄무늬 문양의 옷차림은 다시 줄무늬의 가치 기준을 하락시키는 데 기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15C 독일의 용병들이 입었던 것으로부터 유래가 된 용병들의 제복은 중세부터 16C에 이르기까지 군복뿐 아니라 시민의 제복(말렵감시인, 경찰, 기관 공무원)에서도 줄무늬 문양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단체 조직과 위계 질서의 상징 체계를 만들기 위해 결합된 상징물로서의 용병들의 줄무늬 문양 제복은 17C에 이르러 현대적이며 진정한 의미의 군대 제복으로 탄생하는 시기가 되어 이후 깃발, 군대 표시 등 군대 안에서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 줄무늬 문양을 볼 수 있다.

5. 18C

17C 이후 한동안의 시간이 흐른 후에도 프랑스의 고전적 감각이나 바로크 스타일의 우아함으로도 줄무늬 문양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유일하게 나타난 경우가 이국적이고 동양적이며(이 시대는 아프리카를 동양으로 취급하는 사고 속에 있었음) 전 시대의 터키

취향의 줄무늬가 18C 중반 이후까지 외국을 섬장정치를 많이 하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주로 나타나고 있었다(그림 14).

그러나 1775년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미국 혁명기간 동안 이국적이고 독특한 줄무늬 문양은 복식과 상징물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 혁명적인 의미를 지니는 줄무늬는 신대륙에서 탄생되어(그림 15) 풍요로움의 현상으로써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상하의 차별없이 나타나게 된다.

뷔퐁(Buffon)은 계몽주의가 낳은 시대의 문인이다. 그의 책에서 얼룩말의 얼룩무늬와 털에 대해서 극찬을 하면서 그는 줄무늬에 대한 자신의 관심과 호기심을 나타내었다. 이 책은 줄무늬에 대한 새로운 태도와



〈그림 14〉 1770년대 하인들의 줄무늬 복식. (출처: RAYURES, 1995).



〈그림 15〉 미국 국기의 줄무늬 문양. (출처: RAYURES, 1995).

23) *Ibid.*, p. 49.

관심을 제공하기에 충분했고 줄무늬의 새로운 의미에서의 패션의 시작을 열리게 하기에 공을 세운다.²⁴⁾

앞에서 언급했듯이 더 직접적인 요인으로써의 새로운 의미의 줄무늬 문양은 영국에 적의를 품은 나라들과 프랑스에서 새로운 사고를 지닌 사람들에 의해 시작, 정착된 것이다. 미국 혁명은 계몽주의의 산물이고, 13개의 빨강과 흰색 줄무늬의 국기는 영국 왕권에 대한 새로운 사상과 자유를 상징한다. 이로써 줄무늬는 이상적이며, 정치적인 위상을 빠르게 획득한다. 줄무늬 문양의 옷을 입고, 장식하고, 광고하는 것은 영국 힘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었다. 자유에 대한 투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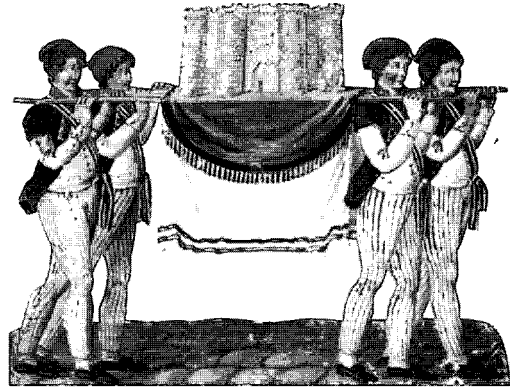
17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영국 역시 줄무늬 문양 옷을 자유롭게 입어 영국 대륙 전 지역에 퍼지게 된다. 로브, 제킷, 쥐스트코르, 망토, 르덴고뜨, 베스뜨, 쥐뿔, 꼬르사쥬, 빵뿔봉, 리본, 스카프, 펄보뜨, 프락 등 궁중에서나 평민 등 많은 사람들이 줄무늬 문양 옷을 즐기게 된다. 이 시기의 줄무늬는 역시 섬세한 세로 줄무늬로 16C, 17C 깃보다 색채 면에서 훨씬 밝은 느낌을 준다. 빨강색과 흰색, 파랑색과 흰색, 녹색과 흰색의 결합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그림 16).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이런 복식 의장은 프랑스에서도 크게 확산된다. 1789년 파리의 시민혁명 때 애용되던 삼색의 휘장은 곧 새로운 체제의 공식화된 상징이 되었다(그림 17).

삼색 휘장을 더럽히는 것은 국가와 조국에 대한 범죄 행위로 받아들여졌다. 1794년 과격 혁명회의에서

는 이는 프랑스 국기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삼색은 프랑스 혁명의 상징이 된다. 시민들은 곧 이 삼색의 조화를 휘장, 군기, 리본, 스카프, 깃털 장식, 옷의 밑단 부위 등 일상의 장식품에 소비재로서 공공연히 사용하게 된다. 줄무늬 문양의 옷을 입는 것은 시민 의식의 증거일 뿐 아니라 사상적 가치를 패션에 결합시키는 자랑스러운 행위가 되었다(그림 18).

혁명의 상징물들은 줄무늬의 활용과 확산에 주목할 만한 역할을 하여 자유와 독립을 상징하는 다양한 아부적인 삼색 줄무늬를 창출해 냈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줄무늬를 이용한 기하학적인 형태로 나라의 상징들을 만들어 내게 된다(그림 3).



〈그림 17〉 삼색 줄무늬 문양의 휘장-18C. (출처: RAYURES, 1995).



〈그림 16〉 밝고 세련된 색상 배합의 여성복-18C. (출처: RAYURES,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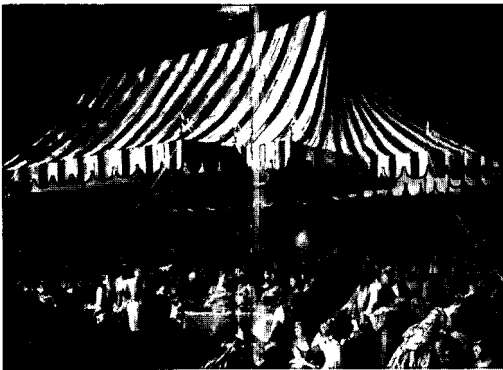
〈그림 18〉 로베르 페에르의 줄무늬 문양 르덴고뜨-18C 딸. (출처: 20000 Years of Fashion, 1987).

24) Ibid., p. 60.

6. 19C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특징들은 그 의미를 변화시켜 가게 되고 줄무늬는 더 이상 18C 말의 프랑스 혁명의 전유물인 상징적인 의미의 것만이 아닌 그 틀을 벗어나는 현상으로 출발되어진다. 19C 초 집정 정치 시대의 상류 사회에서는 유행했던 취미 생활은 동양적인 멋을 첨가시킨 이국적인 스타일의 줄무늬 파라솔 밑에서 손님 접대와 식사를 즐기는 것이었다(그림 19).

줄무늬 문양은 시각적, 문화적 위상을 철저히 변화시키면서 반세기 이상 계속되게 된다. 줄무늬 문양은 18C 중반부터 19C 낭만주의로 이어지면서 귀족적이기도 하며 가치를 부여하는 차원에서의 의미를 지니며 나타나게 된다. 귀족들의 사교 생활 중에서 공공연히 즐겨 사용되어지게 되는데 사실 이런 현상의 근원적인 요인으로써 14C 중반 경 이태리의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젊은 귀족들 사이에 일상화 되었던 짧은 유행을 들 수 있겠다. 사상적 상징은 패션과 결합됐고 이제는 유행의 도구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많은 혁명가들이 복식으로 서로가 평등함으로 표현되기를 원했던 것들이 이제는 일반 시민들에 의해 단색과 세로 줄무늬 문양의 옷과 배합시키면서 줄무늬의 표면 구조적인 변화를 즐기면서 나타나게 된다. 시민들은 자유를 만끽하면서 입혀지기를 원했고 크게 유행하게 된다(그림 20). 여기서 주목되어지는 것이 바로 줄무늬 문양의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이



〈그림 19〉 상류 사회에서 유행했던 생활-1800년대 초. (출처: RAYURES, 1995).



〈그림 20〉 일반 서민들로 인해 크게 유행-19C 초. (출처: RAYURES, 1995).

중적 가치의 상징적 성향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혁명의 상징물이었던 세로 줄무늬 문양은 평등의 추구, 자유함의 추구로서의 의미와 함께 현대 패션의 유행이라는 현대적 감각으로, 이전의 시대와는 반대적인 의미의 가치로 전환되어 간다고 할 수 있겠다. 사실 줄무늬 천을 직조방법에 있어서 많은 제한을 받는다. 유행의 변천은 기술의 역사에 좌우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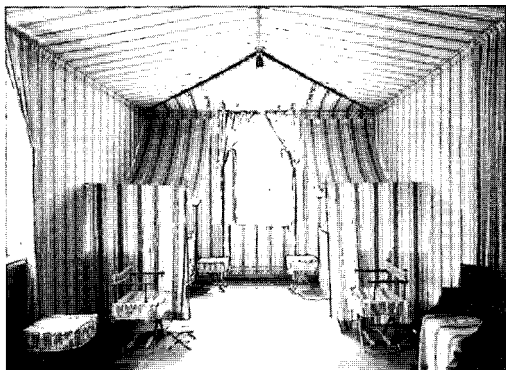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이후로 줄무늬에 대한 이상향은 산업 혁명의 진보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1770년부터 시작된 방직과 방직의 기계화는 의복뿐 아니라 실내 장식용 천으로 사용 확대할 수 있었다. 이제껏 복식에만 한정되었던 줄무늬 문양을 가정용 직물이나 인테리어, 줄무늬 카펫 등으로²⁵⁾ 점점 확산시게 된다(그림 21). 새로운 가치인 세로 줄무늬의 선호는 낭만주의 시대를 지나 몇십년 동안 지속되었고 이후 줄무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 시기의 유럽은 귀족들의 줄무늬 문양, 축제시의 줄무늬 문양, 기본형의 줄무늬 문양, 이국적인 줄무늬 문양 또는 하류 계급의 줄무늬 문양으로, 가치 있게 또는 가치 없게 때론 동시에 두 가지의 평가를 받으면서²⁶⁾ 함께 어우러져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그림 22).

이 시대에 이르러서는 상징적 의미의 가치에서만 그 용도를 찾던 구세대에서, 표면 구조적 의미로써 현대 패션에서 추구하는 의미와 함께 그 상반된 가치체

25) *Ibid.*, p. 75.

26) *Ibid.*, p. 76.



〈그림 21〉 줄무늬문양 직물도 인테리어에 배합시킴-19C 중엽. (출처: RAYURES, 1995).



〈그림 22〉 애용되는 줄무늬 문양-19C 말엽. (출처: 20000 Years of Fashion, 1987).

계들이 공존하게 되는 것이다. 의미의 다양화는 기능의 다양화로 연결되어 인테리어, 일상 용품, 위생 용품, 해양 용품, 아동복 등으로 점차 그 용도가 다양화되어 간다(그림 23). 줄무늬 상징물의 사용처는 국가를 비롯해 기관, 회사, 개인 사업체, 놀이 가구, 스포츠 분야로 확대되어 갔다. 군대는 줄무늬를 특히 많이 사용하는 집합체이다.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줄무늬 문양은 줄무늬가 지니는 그 의미의 다양성 만큼이나 다양한 문양과 색상으로 그 특징을 표현하게 된다.

V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서 가장 많이 표현되고 있으며 오랜 시대에 걸쳐 애용되어온 줄무늬 문양의 조형 가치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변화되어서는 과정을



〈그림 23〉 수영복에서 애용되고 있는 줄무늬 문양. (출처: 20000 Years of Fashion, 1987).

통해 밝힘으로써 줄무늬 문양의 미적 가치로써 의미를 얻어 내고자 했다.

먼저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미적 가치로 중세 시대의 줄무늬 문양은 사회적 도덕적 규범으로서의 역할, 불명예, 체벌의 의미로 사회와 격리됨, 즉, 차별의 표시로서의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미적 가치를 지닌 상징적인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 이 시대의 줄무늬는 주로 강렬한 대비의 2가지 색상의 범주 안에서 표현된 대부분이 변화가 없는 가로 줄무늬로, 이는 확실한 차별감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 될 수 있겠다.

그러나 15, 16세기 경부터는 사선과 세로 줄무늬가 혼용, 사용되면서 색상 배합에서도 2차색의 배합 또는 3가지 색상의 배합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프랑스 혁명기 이후에는 줄무늬 문양의 색상과 줄무늬의 폭과 넓이, 즉 그 표면 구조의 구성 방법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급속도로 다양하게 전개되어 갔다. 다양해진 색상의 새로워진 줄무늬가 그 면적의 분할을 변화 있게 구성하면서 19C에 이르기까지 줄무늬 문양은 다채로운 표면 구조의 변화, 독특한 구성을 특징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중세에서 15~16세기를 거쳐 1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줄무늬 문양은 새로운 질서의 점차적인 변화를 보이면서 다양하게 전개되어졌고 상징적

인 의미로서의 줄무늬 문양의 미적 가치는 다양한 양상의 의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줄무늬 문양의 미적 의미가 타인과의 차별, 효과적인 규범의 의미로 시작해 그 상징성에서 뜻을 바꾸어 가는데 부정적인 측면의 의미가 때로는 보호하개, 때로는 자유함으로 또 다른 독특함과 세련됨의 현대적 의미의 차별성으로 새로운 의미로 갖추기까지 시대의 변천에 따라 확실하게 변화되어져 갔다. 특히 프랑스 혁명기의 평등과 자유에의 사상은 줄무늬 문양의 상징성에 큰 기복제가 되어 개척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줄무늬 문양의 옷을 입는 것은 시민 의식의 증거가 되었으며 사상적인 사고를 패션에 결합시키는 자랑스러운 행위가 될 수 있었다. 이는 결국 줄무늬의 활용과 확산에 주목할 만한 계기가 된 것이었다.

이렇게 줄무늬 문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는 이제까지의 진부했던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존월하여 긍정적인 측면의 가치로 발전하게 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줄무늬 문양의 미적 가치의 다양함은 기능의 다양화로 연결되게 되고, 결국 인테리어, 일상 용품, 위생 용품, 해양 용품 등으로 복식 이외에도 점차 그 사용범위가 다양하게 전개되어졌다.

다음 표면 구조적인 의미로서의 미적 가치는 중세의 줄무늬 문양이 사회적, 도덕적 질서의 위반을 표시하고 이를 범한 사람들을 시각적으로 구별시키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보다 덜 세분화된 가치 체계 속에서의 계층간의 뉘앙스를 섬세하게 느끼도록 하고 있어 어느 시각화된 감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중세 시대까지는 그 형태가 대부분이 정형화된 가로 줄무늬였던 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세로 줄무늬 넓이의 간격의 불규칙적인 배열 등 그 형태에 있어서 기하학적인 다양한 표현으로 변화하면서 나타난다. 18C말, 19C 이후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상과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정형화된 형태가 아닌 자유스러운 줄무늬 문양의 유행은 패션의 현대적 의미에서의 존재 의미를 지니며 나타났다. 전 시대의 사회와의 격리, 제한됨, 차별화함이 아닌 당당함, 자유함으로 몰입되어졌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문양과 색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줄무늬 문양이 전 시대의 부정적인 측면의 미적인 가치에서 현대적이며 긍정적인 측면의 미적 가치로의 전환이라고 하겠다. 이로 인해

다양한 유형으로써 유행을 불러 일으켜 현대에 이르러서 줄무늬 문양은 여러 분야에서 많은 디자인에 적용되어지고 있다. 문양의 특징이 되는 단순미, 경제함, 주목성, 반복성으로 인한 차별화는 많은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응용되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이와 같은 줄무늬 문양의 정체성이 현대인의 감성에 적절하게 응용되어져서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감각적인 해석을 통해 창의적인 욕구를 불러 일으켜 새로운 디자인을 창출하는 요소로서의 역할을 감당키를 희망한다. 또 앞으로 의류산업뿐 아니라 타 산업 분야에서도 줄무늬 문양의 미적인 가치가 인정을 받아 그 응용 영역이 넓혀져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0C 이후 현대에 이르러서는 줄무늬 문양은 시각적인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더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그 독특한 성향과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에 더 심화된 연구의 필요가 있기에 앞으로의 후속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림아, 이효진 (1999). "현대 복식에 표현된 중세문장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복식 44권.
- 김정희 (1993). "유럽 텍스타일 무늬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진임 (1992). "현대 섬유미술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백영자, 유효순 (1994).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경춘사.
- 박지현 (1993). "직선에 의한 기하학적 형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종남 외 3인 역 (1965). *복식의 역사*. 서울: 까치.
- 이일편 역 (1995). *서양미술사*. 서울: 미진사.
- 정원섭 (1993). "직물의 기원과 교류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혜정, 임영자 (1997). "Tartan과 Scotland 복식에 관한 연구." 복식 35권.
- 정홍숙 (1985). *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 정홍숙 (1995). *근대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 Bank, Caroline Renolde MIL (1989). *New York Fashion*. Japan: Harry N. Brown, Inc. Publisher.

Boucher, François (1987). *20000 Years of Fashion*. New York: Harry N. Al. Inc. Publishers.

Gillow, John and Bryan Sentaue (1999). *World Textiles*. London: Little. Brown and Company.

Janson, H. W. (1982). *History of Art*. New York:

Prentice-Hall, Inc. Englewood ffe. N. J. & Harry N. Ab. Inc.

Rastoureau, Michel (1995). *Rayures*. Paris: Edition scuil.

Scott, Jack Carein (1994). *Costume and Fashion*. Hong-Kong: British Library Cataloguing-in-Publication Data.